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8

한 생각 돌려 진면목 보라

[원문]

세존좌도량(世尊坐道場) 청정대광명(淸淨大光明) 비어천일출(比如千日出) 조요대천계(照耀大千界) -대홍사 천불전

[번역]

세존께서는 도량에 앉아 계시고 청정한 대 광명을 놓으시네. 비유하건대 마치 천계의 해가 뜨는 것 같이 대천세계를 밝게 비추시네.

[신해(禪解)]

지난 주 KBS '일요스페셜'에 백담사 무급선원 스님들의 무문관(無門關) 수행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됐다. 금기시되었던 스님들의 수행처가 이례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소개된 것이다.

스님들의 수행현장과 치열한 구도의 이야기를 그것도 사생활이 가장 높은 일요일 저녁에 방영한 것은 파격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승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의문스럽다. 그래서인지 쑥쓰레한 생각이 오래 남는다. 수행의 본분은 오직 자신의 마음을 닦기 위한 과정인데 이를 다른 이들에게 노출한다는 건 아무래도 불가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무문관이란 일정한 기한을 정해 문을 닫아걸고 수행하는 선방을 말하는데, 불자들이 일반인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수행처이다. TV에서는 3개월에 걸친 스님들의 동안거를 코드로 잡고 마지막 안거를 끝낸 시점에서 문에 잠긴 열쇠를 풀어주는 것으로 마지막을 장식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주시해야 할 사항은 바로 방문을 걸어 잠근 열쇠에 있다. 무문관이란 엄밀하게 말하면 <문 없는 문>이다. 그런데 왜 문 없는 문에 열쇠를 잠그는 것일까? 스님들이 수행 중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이겨낼 수 없어 혹은 문을 박차고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종의 강압적인 통제를 위해 열쇠고리를 만든 것은 아닐까하고 일반인들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통과의식으로 그만큼 불가의 수행은 철저한 통제와 근기(根基)를 가져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스님들이 무문관 수행을 하면서 만나고 접할 수 있는 건 오직 사방이 막혀 있는 벽뿐이다. 이를 두고 벽관(壁觀)이라고 하는데 '참다운 마음을 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럼, '참다운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 바로

'변뇌와 망념이 없는 청정한 마음'이라 할 수 있는데 곧 깨달음이다. 그러므로 무문관 수행은 '먼지와 티끌 없이 마음을 비우고 오직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철저하게 가두어야 하지만 정신은 반드시 자유자재해야 한다.

이날 일요스페셜은 '불교의 세계'를 일반인들에게 보다 차원 높게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무문관 수행의 본질적인 의미와는 거리가 멀어 자칫 스님들의 수행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요즘 남국선원, 무급선원, 조계암, 무일선원 등의 무문관이 생긴 것도 좋은 일이라 할 수 있다.

대홍사는 한국불교를 이야기함에 있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천년고찰이다. 해남 두륜산(頭輪山)의 빼어난 절경을 배경으로 자리한 이곳은 한국불교사 전체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천계의 해가 뜨는 것 같이/대천세계를 밝게 비추고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금언(金言)이라 하겠다.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마치 물과 얼음과 같다. 물을 떠난 얼음이 없고 얼음을 떠난 물이 없듯이 중생에게서 부처를 구해야지 다른 데서 부처를 찾아봐야 없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는 항상 부처님이 존재하고 있다. 다만 이를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즉, 자신이 부처임을 자각하고 부처로 살면 부처이고 이것을 모르고 중생인 줄 알고 중생으로 살면 영원히 중생에서 벗어 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한 생각 바꾸어 부처님이 전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바로 전해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불전의 주련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경구(警句)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이 매우 똑똑하다고 믿고 있다. 돌이켜 보면 한갓 지식집대계에 집착하고 있다. 바로 자신이 부처임을 모르는, 존재의 실상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깨치기 위해 수행하는 곳이 바로 무문관이라 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부처와 내가 물이 아닌 하나이며, 들뜬에 피어 있는 풀꽃과 나무가 들이 아닌 하나이며 저 하늘의 별과 달이 물이 아닌 하나임을 깨치는 곳이다. 그래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부처님을 바로 볼 수 있고 만날 수가 있다.

이를 진실로 깨달을 때 마치 '천계의 해와 천계의 달이 비추는 것 같은 부처님의 대지혜의 광명'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청정하고 참다운 마음'을 찾기 위한 치열한 수행이다.

■ 조계종 원로의원

중생 떠난 곳에서 부처를 구하는 것 불가능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성불의 기회 잡아야

도량으로서 임진왜란 이후 서산(西山) 대사 의발(衣鉢)이 전해지면서 조선불교의 중심 도량이 됐고, 오늘날 한국불교의 종가집도량으로 불리고 있다.

풍담(風潭) 스님으로부터 초의(草衣) 스님에 이르기까지 13대종사(大宗師)와 만화(萬化) 스님으로부터 범해(梵海) 스님에 이르기까지 13대강사(大講師)가 이곳에서 배출했다. 당시 암울했던 조선시대의 불교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존재는 한국불교를 오늘에까지 있게 한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한국불교의 위대한 성지라고 할 수 있는데 조선중기 이후 수많은 선승(禪僧)과 교학승(敎學僧)을 배출하면서 한국불교의 중심도량으로 성장한 곳이다. 무문관 수행의 핵심처라고 할 수 있다. 대홍사 경내와 산내 암자에는 중요한 국보급 문화재가 상당수 존재한다.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국보 제308호), 탑산사 동종(보물 제88호), 북미륵암 삼층석탑(보물 제301호)과 더불어 천불전은 전남 유형문화재로 알려져 있다.

한국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호국도량의 위상을 간직 하고 있는 이곳은 지금도 성불(成佛)과 중생구제의 서원을 간직한 스님들의 정진이 끊이지 않는 청정수행도량이다.

천불전에 있는 주련 '세존좌도량 청정대광명: 세존께서는 도량에 앉아 계시고 / 청정한 대광명을 놓으시네'는 부처님의 존재의 거룩함을 보여 주는 내용이다. 말하자면 부처님은 시방 삼천대천세계 그 어디에도 존재하고 있으며 항상 청정한 대광명을 빛내고 있으며 마치 '비어천일출' 조요대천계: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받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본가는 언제나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8

생사 없는 자리 깨달아

[원문]

若欲覓佛 須是見性 即是佛 若不見性 念佛誦經 持齋持戒 亦無益處 念佛得因果 誦經得聰明 持戒得生天 布施得福報 覓佛終不得也.

부처를 찾고 싶으면 반드시 성품을 보아야 하나니라. 그것이 바로 부처이니라. 성품을 보지 못한다면 염불을 하거나 경을 읽거나 재(齋)를 지키거나 계율을 지키더라도 아무런 이익이 없느니라. 염불을 하면 왕생의 인과를 얻고, 경을 읽으면 총명해지고, 계율을 지키면 천상에 태어나고, 보시를 하면 복스런 과보를 받겠지만 부처는 끝내 찾을 수 없느니라.

[해설]

생도 없고 죽음도 없는 부처의 자리를 찾는 방법에 대해 달마 스님은 '부처를 찾고 싶으면 반드시 성품을 보아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진언을 외울 때나 화두를 들거나 염불을 할 때 문자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부처자리에 마음을 두고 의심을 하게 되면 틀이 생기지 않아서 잡념이 없고 집중이 잘 돼 맑은 기운이 업을 밝혀 줍니다. 탁한 기운이 맑은 기운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오래 정진하면 할수록 우리의 불성 자리가 조금씩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염불을 하든, 화두를 들든, 열심히 일심으로 정진하면 우리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성품을 보는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생사가 없는 그 자리를 체험하는 순간 '견성(見性) 했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견성한 다음에 경을 보면 배우지 않았어도 모두 알게 됩니다. 배우지 않았지만 체험을 하고 나니가 막힘 없이 다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품을 보지 못한다면 염불을 하거나, 경을 읽거나, 재(齋)를 지키거나, 계율을 지키더라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랑경> <방등경>을 통해 교훈적인 말씀을 20년 동안 설법하신 다음 이해가 되신 분들에게 바로 반야부처서 생사가 본래 없는 체(體)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주와 내가 물이 아닌 하나의 성품을 봤다면 염불을 할 필요도 없고 경을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수행을 하지만 한 다는 생각이 끊어진 자리를 말합니다. 어떤 행동을 해도 걸림이 없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볼 때는 파계고 막행마식(莫行莫食)이지만 정신세계에서 보았을 때는 걸림이 없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걸만 보고 이견 옳고 이견 잘못 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마음자리에서 보면 잘한 것도 없고 잘못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달마 스님은 실상(實相)을 바로 보지 못한 가운데 경을 읽거나 계율을 지키더라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일념으로 염불을 하면 왕생(往生) 인과를 받고 극락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극락에 가더라도 생사가 끊어진 것은 아닙니다. 극락에 가더라도 본

래 성품을 깨닫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행해야 합니다. 극락은 마음자리를 깨닫기 위한 수행 공간이기에 그렇습니다. 극락세계는 상품, 중품, 하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품(中品)에선 수행이 가능하지만 하품(下品)에선 수행 전 결과 마음을 바로 세우는 곳입니다. 견성을 하신 분들은 상품(上品)으로 그대로 올라가고, 견성을 못했지만 열심히 수행했던 분들은 중품으로 올라갑니다. 불교도 모르고 열심히 수행도 하지 않고 절에 왔다 갔다 하시던 분들은 스님들의 힘을 빌려 극락에 간다 하더라도 하품으로 갑니다.

정진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사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눈을 떠야 가족이나 다른 누구에게라도 이익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정진하면 집안의 나쁜 기운도 정화되고 집안도 저절로 편안해집니다.

달마 대사는 염불을 할 때 관상염불이나 청명염불을 하면 극락을 갈 수 있지만 실상염불이 되지 않을 땐 깨닫기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경을 읽으면 총명해진다 하셨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신 경의 뜻을 새겨 자기 마음을 비추며 읽다보면 총명해집니다. 또 계율을 지키면 천상에 태어난다고 하셨는데, 천상에 태어난다고 해도 천상은 영원한 곳이 아니라 업이 다하면 다시 윤회 하는 곳이니까, 부처를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시를

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은 실상자리에서 보시를 행하는 경우 우주를 상대로 하는 행위이니 부처님으로서 갖추게 되는 무량한 덕이 됨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보시는 행한 만큼 큰 복을 받지만 업이 다할 땐 다시 과보를 받게 되니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 부처님께 수행해야 합니다. 지장보살을 찾든 관음보살을 찾든 상관이 없습니다. 본래 모양이 없고 어떤 이름도 붙일 수 없는 그 자리가 부처이기 때문에 마음을 집중시키기 위한 방편이라는 말이지요. 지장보살과 관세음보살이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이름만 다르게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형상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소리로서 나를 알려고 하는 자는 영원히 진리를 보지 못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들 본래 마음자리입니다. 그 자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염불이나 진언, 화두로 마음을 집중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염불이나 진언을 염하든, 화두를 들든 맑은 기운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어떠한 방편으로든 정진을 하면 할수록 정신이 맑아지고 나쁜 기운도 정화가 되니까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결국 본래 부처자리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일본 하쿠인 작 '直指人心 性成佛(직지인심견성성불)'

스님! 병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병의, 퇴마, 최면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모집] ▶ 개강일: 3월 30일(월요일) ▶ 교육 기간: 6주(24시간) ▶ 모집 인원: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100만원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